

10 오피니언

사설

총학 뒤 대학, 교비 감독은 누구 몫인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국제 캠퍼스(국제캠) 축제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끝으로 치닫다가 축제가 끝난 지금도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논란은 ‘불통’을 거치며 실체를 상실했고 자기 혼자 살까지 붙어 곳곳에 흠뻑뿌린 상태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는 봄 대동제에 이어 또다시 ‘불통’ 논란에 휩싸였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태로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방을 받았다.

학생들은 입찰 공고로 밝혀진 예산액에 비해 섭외 연예인의 지명도가 낮으며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봄 대동제에 사용되지 않았던 예산이 어디에 할당됐는지, 가을 대동제에 포함됐는지 밝히라며 게시판과 트럭시위 같은 공론장까지 만들어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총학이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따로 하지 않은 데다가 VOU(대학의소리방송국)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발언하자 비난 여론은 더 거세졌다.

학생들의 분노를 단순히 유명 연예인을 원하는 투정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 그들의 분노에는 뼈속 깊은 불신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불신이 비롯되는 지점은 역시 불통이다. 국제캠 총학은 지난 1학기부터 모든 논란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듯 보이는 총학의 대응은 분명 아쉬운 지점이 있다. 하지만 2억을 넘기는 교비를 사용하면서도 투명한 공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현 상황은 우리학교가 안고 있는 제도적 허점을 반증하는 셈이다.

결국 시스템이 문제다. 우리 신문은 예산 사용 내역을 취재해 기사에 밝혔다. 취재에 의해 밝혀야 하는 사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첫 번째이며, 대학은 예산을 주기만 하는 주체인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다. 마지막으로 대학은 왜 구성원의 궁금증을 왜 해소시키지 않는가이다. 의아한 점은 예산을 관리하는 주체인 대학이 지금의 논란에서 멀리 떨어져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교비를 지급하고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주체는 결국 대학이다. 결코 이 사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축제 예산은 어디서 비롯되는가. 학생 등록금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등록금이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학생은 알 권리가 있다. 일정 금액 이상, 반드시 대학을 통해 진행돼야 하는 입찰을 요할 정도의 금액(2천만 원) 만큼의 사업이라면 대학과 자치기구 사이에 사후 검증을 위한 단계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자치기구의 특성상 사전 검증은 압박이나 자율성 침해로 비칠 수 있기에 사후 검

증이 현실적인 방식일 것이다. 검증 절차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된 이후 교비 사용 내역을 열람하고 싶은 학내 구성원이 있다면 누구에게나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번 축제와 관련한 논란은 결국 알고 싶은 것이 적절하게 공개되지 않은 데서 시작됐던 것임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해결되지 못한 과거는 반드시 찾아온다.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면 이번에 벌어진 일이 다음에 또 벌어지지 않을 것임을 담보할 수 없다. 불만은 결국 ‘의혹’을 낳았다. 확실한 증거 없이 자치기구와 대학이 의심받는 이번 대동제 사태가 재연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미 있는 검증 절차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혹시라도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있는가? 되려 대학에 묻고 싶다. 왜 실시하고 공개하지 않는가.

세시봉

‘빌런’ 만들기



김동혁 기자
kdh0626@khu.ac.kr

최근 일반인 남녀 출연자가 출연해 연인 관계를 맺는 프로그램이 화제다. 특히 출연자 중, 특이한 언행을 보이는 ‘빌런’의 등장은 흥행 보증 수표가 되기도 한다. <나는 SOLO> 프로그램이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될 수 있었던 것에도 ‘빌런’으로 불린 특정 출연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일반인 출연자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미디어에 익숙지 않은 출연자가 ‘빌런’으로 몰려 무형의 폭력을 당하고 있다.

SNS를 열어 #‘빌런’을 검색해 보자. ‘빌런(Villain)’은 본래 악당, 악인을 일컫는 영어 단어다. 그러나 근래 들어 ‘빌런’은 더 이상 영단어가 아닌 하나의 신조어로 자리 잡았다. 우리는 단순히 악한 인물뿐 아니라 남과 다르거나 보편적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언행을 일삼는 이들에게 ‘빌런’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빌런’으로 규정된 일반인 출연자를 향한 폭력 역시 너무도 쉽게 가해지고 있다.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반인 출연자를 향해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비방하는 일은 예사로 일어난다. 출연자 개인 SNS에 욕설을 남기는 등 꽤나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확인되지 않은 개인사를 들추거나 비판 여론에 동조하며 빌런 형성에 일조하는 언론도 존재한다.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러한 언론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일부 일반인 출연자는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철학자 쾨터 안더스는 “TV는 실제 사건을 편집해 사실은 실재하지 않는 변형된 새로운 실재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인물이 빌런이 되는 과정에 제작진의 의도적인 편집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편집된 세계에서 타의로 빌런이 된 이들은 쾨터의 말처럼 현실 세계에서도 불특정 다수에게 빌런으로 인식된다. 설사 그들이 현실 세계의 빌런이라고 하더라도, ‘빌런’이라는 타이틀이 무분별한 지탄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표현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혐오가 쉬워지는 시대다. “TV 너머에 사람이 있음”을 상기하는 시청자들의 성숙한 자정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건강한 노동을 위해

말할 수 있는 용기

박상희 기자
smtg7475@khu.ac.kr



알바를 하며 부당한 대우를 겪은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청 구제신청처럼 무너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귀찮음, 사업주와의 관계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신고행위가 금전에 집착하거나 밝히는 행위로 비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노동을 제공하고 받을 수 있는 대가는 금전이다.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과 대가를 지급받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

지난 2011년, 스타벅스는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알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4.5시간

으로 설정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엔 현재와 마찬가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했다. 스타벅스는 편법을 써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해간 것이다. 해당 논란이 심화된 이후 주휴수당에 대한 인식은 크게 향상됐지만 현재도 가장 바쁜 시간대에 2~3시간씩 짧은 시간 동안만 근무하는 ‘쪼개기 알바’가 여전히 자주 보인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자신의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15세부터 만 34세의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유선·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노동 상담 및 진정 사건 대리 등을 제공한다. 해당 사이트에서 근로권익교육 또한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당신이 ‘알바생’이라는 이유로 견뎌온 모든 착취와 폭력의 부당함으로부터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길, 이로써 건강한 노동환경 속에서 보호받길 바라본다.



만평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무료 노동 상담 등을 제공한다.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한균태

편집인

남윤재

편집장

이지수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청솔디자인 | 인쇄

옴니퍼매디